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터키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터키의 농업 규모는 매년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산업 중 농업의 비중은 2019년부터 회복되고 있음
 - 2020년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DP)은 3,331억 6,200만 리라(한화 약 45조 1,868억 원)¹⁾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19.9%의 성장률을 기록함
 - 전체 GDP 중 농업 GDP의 점유율은 2020년 6.6%로, 2018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임

터키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DP)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리라,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DP ¹⁾	전체	2,626,559.7	3,133,704.3	3,758,315.6	4,320,191.2	5,047,909.5	16.8	17.7
	농업 ²⁾	161,331.0	189,232.8	217,072.5	277,494.9	333,162.0	20.1	19.9
	비중	6.1	6.0	5.8	6.4	6.6	3.1	2.0

* 주1 : 당해년 가격 기준 GVA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Worldbank, Statista

- 2020년 농업 고용인구는 약 470만 5,000명으로 집계됨
 -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농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0.6%p 하락한 17.6%를 차지함

터키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27,215	28,196	28,733	28,079	26,804	△4.5	△0.4
농업 고용인구 (비중)	5,307 (19.5)	5,465 (19.4)	5,296 (18.4)	5,085 (18.1)	4,705 (17.6)	△7.5	△3.0

* 주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FRED

1) 1리라=135.63원 (2021.08.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농업용지 면적은 총 3,776만 2,000ha, 경작지는 1,958만 6,000ha로 집계됨
 - 전체 농업용지와 경작지는 2019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영구농작물의 재배면적은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
 - 곡물 재배면적 중 밀의 재배면적이 692만 2,236.4ha로 가장 넓으며, 보리가 309만 7,162.5ha에서 재배되고 있음
 - 과일 및 향신료와 올리브, 포도 등을 포함한 영구농작물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단일품목 가운데 해바라기씨와 사탕무의 재배지 또한 넓은 것으로 나타남

터키 유형별 농경지(2016~2020)

(단위 : 천 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용지 전체	38,328	37,964	37,797	37,716	37,762	0.1	△0.4
경작지	20,382	19,998	19,723	19,580	19,586	0.0	△1.0
파종지	15,575	15,498	15,421	15,398	15,628	1.5	0.1
채소	804	798	784	790	779	△1.4	△0.8
과수	5	5	5	5	5	0.0	0.0
휴경지	3,998	3,697	3,513	3,387	3,173	△6.3	△5.6
영구농작물	3,329	3,348	3,457	3,519	3,559	1.1	1.7
과일 및 향신료	2,048	2,085	2,176	2,241	2,271	1.3	2.6
올리브	846	846	864	879	887	0.9	1.2
포도	435	417	417	405	401	△1.0	△2.0
목초지	14,617	14,617	14,617	14,617	14,617	0.0	0.0
임야	22,343	22,343	22,622	22,740	22,740	0.0	0.4

* 출처 : 터키 통계청(TURKSTAT)

터키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2016~2020)

(단위 : 데카르(=0.1ha))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곡물	밀	76,719,448	76,688,785	72,992,701	68,463,271
	보리	27,400,521	24,247,372	26,119,403	28,690,715
	옥수수	6,800,192	6,390,844	5,919,003	6,388,287
해바라기씨		7,201,081	7,796,217	7,344,651	7,526,318
사탕무		3,224,477	3,392,742	2,921,044	3,137,891
과일류	포도	4,352,269	4,169,068	4,170,410	4,054,387
	바나나	62,245	68,211	76,163	84,879
차		763,609	821,079	781,334	785,693

* 출처 : 터키 통계청(TURKSTAT)

- 터키의 식용 가능한 가축 수²⁾는 총 6,616만 9,618마리로 집계되며 그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양은 3,727만 6,05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연평균 4.3% 수준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소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9년 1,768만 8,139마리를 기록함

터키 주요 가축 수(2015~2019)

(단/위 : 마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전체	55,918,171	55,409,387	60,255,894	63,159,905	66,169,618	4.8	4.3
양	31,507,934	30,983,933	33,677,636	35,194,972	37,276,050	5.9	4.3
소	13,994,071	14,080,155	15,943,586	17,042,506	17,688,139	3.8	6.0
염소	10,416,166	10,345,299	10,634,672	10,922,427	11,205,429	2.6	1.8

* 출처 : 터키 통계청(TURKSTAT)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곡물 및 채소, 과일 등의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밀은 2020년 2,050만 톤 생산되어 곡식류에서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전년 대비 밀 생산량은 7.9% 증가하였음
- 밀 생산량이 전년대비 증가함과 동시에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류 품목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함
- 채소류의 생산량은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2019년에는 3,108만 9,644톤 생산되어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음
- 2019년에는 토마토가 전체 채소 생산량 중 약 41.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도 1,320만 4,015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이어 수박, 양파, 오이 등의 채소류가 안정적인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음
- 과일 및 견과류는 최근 2019년 2,057만 8,453톤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과일 및 견과류 품목 중 사과, 포도, 만다린, 오렌지 순으로 많은 생산량을 보임

2)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에서 식용 가축으로서 돼지 사육은 금지됨

- 이외에도 단일 품목에서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품목은 사탕무, 감자, 해바라기씨, 차, 올리브 등이 있음

터키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4,361,164	35,232,767	34,408,699	34,401,704	37,187,508
곡물	밀		20,600,000	21,500,000	20,000,000	19,000,000	20,500,000
	보리		6,700,000	7,100,000	7,000,000	7,600,000	8,300,000
	옥수수		6,400,000	5,900,000	5,700,000	6,000,000	6,500,000
전체			30,266,897	30,825,569	30,032,727	31,089,644	-
채소류	토마토		12,600,000	12,750,000	12,150,000	12,841,990	13,204,015
	수박		3,928,892	4,011,313	4,031,174	3,870,515	3,491,554
	양파		2,120,581	2,175,911	1,930,695	2,200,000	2,280,000
	오이		1,811,681	1,827,782	1,848,273	1,916,645	1,886,239
	멜론(박류)		1,854,356	1,813,422	1,753,942	1,777,059	1,724,856
전체			18,693,529	20,580,293	20,494,028	20,578,453	-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만다린	1,337,037	1,550,469	1,650,000	1,400,000	1,585,629
		오렌지	1,850,000	1,950,000	1,900,000	1,700,000	1,333,975
		레몬	850,600	1,007,133	1,100,000	950,000	1,188,517
	핵과류	복숭아	674,136	771,459	789,457	830,577	892,048
		살구	730,000	985,000	750,000	846,606	833,398
		자두	297,589	291,934	296,878	317,946	329,056
	이과류	사과	2,925,828	3,032,164	3,625,960	3,618,752	4,300,486
		배	472,250	503,004	519,451	530,723	545,569
		마르멜로	126,400	174,038	176,479	180,542	189,251
	기타 과일	포도	4,000,000	4,200,000	3,933,000	4,100,000	4,208,908
		바나나	305,926	369,009	498,888	548,323	728,133
		무화과	305,450	305,689	306,499	310,000	320,000
	견과류	헤이즐넛	420,000	675,000	515,000	776,000	665,000
		피스타치오	170,000	78,000	240,000	85,000	296,376
		호두	195,000	210,000	215,000	225,000	286,706
사탕무			19,592,731	21,149,020	17,436,100	18,054,320	23,025,738
감자			4,750,000	4,800,000	4,550,000	4,979,824	5,200,000
해바라기씨			1,670,716	1,964,385	1,949,229	2,100,000	2,067,004
올리브			1,730,000	2,100,000	1,500,467	1,525,000	1,316,626
차			1,350,000	1,300,000	1,480,534	1,407,448	1,450,556

* 출처 : 터키 통계청(TURKSTAT)

□ 2019년 적색육 전체 생산량은 120만 1,469톤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적색육 중 소고기의 생산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07만 5,479톤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 이어서 2019년 양고기 생산량은 10만 9,382톤, 염소고기는 1만 6,536톤 생산됨
- 닭고기 생산량은 213만 8,451톤으로 집계되어 전체 육류 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육류 외에 우유와 꿀, 달걀 생산량이 많으며, 모두 꾸준한 생산량을 보임

터키 주요 축산물 생산량(2015~2019)

(단위 : 톤, 천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년비 (’18/’19)	연평균 (’15/’19)
적색육 전체	1,149,262	1,173,042	1,126,403	1,118,695	1,201,469	7.4	1.1
소	1,014,926	1,059,195	987,482	1,003,859	1,075,479	7.1	1.5
양	100,021	82,485	100,058	100,831	109,382	8.5	2.3
염소	3,399	31,011	37,525	13,603	16,536	21.6	48.5
닭고기	1,909,276	1,879,018	2,136,734	2,156,671	2,138,451	△0.8	2.9
우유	18,654,682	18,489,161	20,699,893	22,120,716	22,960,379	3.8	5.3
꿀	108,128	105,727	114,471	107,920	109,330	1.3	0.3
달걀 (천 개)	16,727,510	18,097,605	19,281,196	19,643,711	19,898,126	1.3	4.4

* 출처 : 터키 통계청(TURKSTAT)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6억 8628만 6,000달러(한화 약 13조 4,088억 원)로 집계됨

- 이라크(17.0%)를 비롯하여 독일(7.5%), 미국(6.2%), 시리아(3.8%) 등으로 수출됨
- 이라크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9억 8487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2774억 원)로 집계됨

- 독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하여 8억 7,778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72억 원)로 나타남
-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하여 7억 2,953만 3,000달러(한화 약 8,371억 원)을 기록함
- 다음으로 시리아로의 수출액 4억 4,343만 8000달러(한화 약 5,088억 원),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 3억 5,577만 7,000달러(한화 약 4,082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영국(2.4%), 네덜란드(2.4%) 등의 국가로 수출이 증가함
- 터키의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9%로 대폭 증가한 9,039만 1,000달러(한화 약 1,037억 원)로 집계됨
- 터키의 국가별 수출액 순위에서 33위에 위치하며, 전체 수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작은 비중이지만 2016년 이후 연평균 30.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9,362,386	9,781,281	10,207,879	11,002,764	11,686,286	100	6.2	5.7
1 이라크	2,231,002	2,295,399	2,155,090	2,073,560	1,984,872	17.0	△4.3	△2.9
2 독일	751,351	746,542	749,238	756,782	877,783	7.5	16.0	4.0
3 미국	401,851	475,330	555,874	637,389	729,533	6.2	14.5	16.1
4 시리아	498,794	473,097	517,884	539,010	443,438	3.8	△17.7	△2.9
5 사우디아라비아	345,838	344,873	401,885	415,494	355,777	3.0	△14.4	0.7
6 영국	193,372	201,900	232,861	256,360	280,847	2.4	9.6	9.8
7 네덜란드	224,522	221,942	235,710	245,633	276,177	2.4	12.4	5.3
8 이스라엘	201,727	206,268	231,513	238,897	274,330	2.3	14.8	8.0
9 아랍에미리트	191,344	192,894	193,516	243,301	255,687	2.2	5.1	7.5
10 예멘	91,037	94,736	157,177	308,599	250,151	2.1	△18.9	28.7
33 대한민국	31,019	37,553	50,338	67,508	90,391	0.8	33.9	30.7

* 출처 : ITC TradeMap

- 주요 수출 품목은 곡물 가루, 조제품, 스낵류 등 가공식품의 비중이 큰 편
-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9억 5,107만 4,000달러 (한화 약 1조 913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 수출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7억 9,837만 6,000달러(한화 약 9,161억 원)로 집계됨

- ‘기타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 수출액은 7억 1,965만 8,000달러(한화 약 8,257억 원)로 전년 대비 24.7% 증가
- ‘기타 설탕과자’ 는 2.5%, ‘기타 조제식품’ 은 전년 대비 0.2% 수출액이 증가함
- 이 외에도 ‘빵, 패스트리,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제과류’ (3.3%), ‘스위트 비스킷’ (3.1%), ‘와플과 웨이퍼’ (2.9%) 순서로 수출 비중이 나타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9,362,386	9,781,281	10,207,879	10,060,351	11,686,286	100	16.2	5.7
1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1,078,489	1,052,581	1,006,290	1,051,757	951,074	8.1	△9.6	△3.1
2 기타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	688,926	693,516	646,658	743,270	798,376	6.8	7.4	3.8
3 기타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	404,003	468,538	526,293	577,097	719,658	6.2	24.7	15.5
4 기타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와 그 분획물	636,407	538,877	412,131	429,986	638,243	5.5	48.4	0.1
5 기타 설탕과자 (코코아를 함유한 것 제외)	359,897	388,600	405,372	437,104	447,990	3.8	2.5	5.6
6 기타 조제 식품	341,371	347,623	388,618	398,320	399,142	3.4	0.2	4.0
7 빵, 패스트리,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제과류	324,040	329,111	354,688	393,809	386,924	3.3	△1.7	4.5
8 스위트 비스킷	324,184	333,165	333,610	344,680	357,749	3.1	3.8	2.5
9 와플과 웨이퍼	233,919	274,173	308,797	334,608	338,642	2.9	1.2	9.7
10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273,330	303,591	323,036	351,871	337,634	2.9	△4.0	5.4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62억 3,077만 달러 (한화 약 7조 1,492억 원)로 집계

- 러시아산(16.4%)과 말레이시아산(9.0%) 비중이 높은 편
 - 러시아산 수입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감소세로 인해 2016년 이후 연평균 1.3%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39.3%의 높은 폭으로 증가하여 10억 2,402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1,750억 원)를 기록함
 - 말레이시아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억 5,956만 7,000달러(한화 약 6,420억 원)로 2016년 이후 5년 간 연평균 0.3% 증가
 -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억 6,405만 8,000달러(한화 약 4,177억 원)로 집계됨
 - 이 밖에도 독일산(5.5%), 우크라이나산(5.4%), 네덜란드산(5.3%) 등의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한 558만 8,000달러(한화 약 64억 원)로 집계
 - 2016년 316만 3,000달러(한화 약 36억 원) 수입액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5.3%의 증가율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338,216	5,469,405	4,926,935	5,739,408	6,230,770	100.0	8.6	3.9
1 러시아	1,077,975	768,554	616,486	735,348	1,024,025	16.4	39.3	△1.3
2 말레이시아	552,601	592,558	586,585	535,150	559,567	9.0	4.6	0.3
3 아르헨티나	188,879	259,539	199,789	327,241	364,058	5.8	11.3	17.8
4 독일	320,236	324,896	336,258	361,019	345,180	5.5	△4.4	1.9
5 우크라이나	396,642	416,520	282,064	317,668	333,733	5.4	5.1	△4.2
6 네덜란드	270,316	274,621	298,952	310,541	330,767	5.3	6.5	5.2
7 미국	345,717	470,253	369,240	276,067	315,868	5.1	14.4	△2.2
8 인도네시아	78,789	139,144	101,527	134,268	228,563	3.7	70.2	30.5
9 영국	169,506	194,723	175,070	210,796	207,570	3.3	△1.5	5.2
10 이탈리아	146,702	183,573	161,000	165,129	183,529	2.9	11.1	5.8
58 대한민국	3,163	4,798	3,757	4,101	5,588	0.1	36.3	15.3

* 출처 : ITC TradeMap

- 터키의 주요 수입품에는 유지 및 오일류, 조제 식료품, 정미, 향료 및 주류 등의 품목이 상위에 있음
 - ‘해바라기씨유·잇꽃유’ 수입액은 전년 대비 69.6% 증가한 6억 7,782만 1,000달러(한화 약 7,777억 원)로 나타남
 - ‘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수입액은 2019년보다 20.7% 증가한 5억 214만 3,000달러(한화 약 5,762억 원)로 나타남
 -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4억 9,574만 9,000달러(한화 약 5,688억 원)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으며, ‘정미’ 수입액은 2억 597만 8,000달러(한화 약 2,363억 원)로 0.6% 증가
 - 이 외에도 ‘식품·음료산업에 사용되는 향기성 물질 및 혼합물’(3.7%),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자당’ (1.7%), ‘밀가루 및 전분가루 등으로 만들어진 영유아용 조제 식료품’ (1.5%) 순의 비중을 차지함
 - ‘버진 올리브유’ 수입액의 경우 전년 대비 20.8%, 2016년 이후 연평균 95.9%로 큰 폭으로 증가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338,216	5,469,405	4,926,935	5,739,408	6,230,770	100.0	8.6	3.9
1	해바라기씨유·잇꽃유	970,109	614,662	370,565	399,696	677,821	10.9	69.6	△8.6
2	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405,717	426,060	391,693	415,984	502,143	8.1	20.7	5.5
3	기타 조제 식료품	401,902	454,467	455,182	424,135	495,749	8.0	16.9	5.4
4	정미	36,826	77,687	110,930	204,678	205,978	3.3	0.6	53.8
5	식품·음료용 향기성 물질 및 혼합물(알코올성 용액 포함)	218,418	222,886	208,173	208,034	230,399	3.7	10.8	1.3

6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53,348	120,221	82,944	70,482	108,011	1.7	53.2	△8.4
7	밀·전분가루 등으로 만들어진 영유아용 조제 식료품	100,495	103,052	101,164	106,205	92,963	1.5	△12.5	△1.9
8	위스키류	70,012	89,599	50,286	89,971	92,422	1.5	2.7	7.2
9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	58,821	57,788	81,394	84,907	88,082	1.4	3.7	10.6
10	설탕이나 감미료 등을 첨가한 물 (광천수와 탄산수 포함)	47,984	48,646	41,452	65,161	75,195	1.2	15.4	11.9

* 주1 : 주요 수입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

나. 한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에서 터키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2,939만 1,400달러(한화 약 337억 원)로 집계됨

-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액 성장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연평균 29.3% 증가하였음
 - 농산물 수출액은 2,585만 3,000달러(한화 약 297억 원)로 전년 대비 9.2% 증가함
 - 2020년 전체 수출액의 88.0% 비중을 차지하여 작년보다 농산물의 비중이 낮아지고 축산물과 임산물의 비중이 소폭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對터키 수출규모(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0,524.9	17,767.5	17,620.1	25,645.9	29,391.4	100	14.6	29.3
농산물	8,427.6	16,166.7	16,005.4	23,666.8	25,853.0	88.0	9.2	32.3
축산물	1,685.7	1,371.8	1,437.0	1,854.2	3,225.9	11.0	74.0	17.6
임산물	411.6	229	177.7	124.9	312.5	1.1	150.2	△6.7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에는 기타 조제 식료품(57.2%), 커피류(6.8%), 젤라틴(6.2%), 주류(4.4%) 등이 있음
- 기타 조제 식료품 수출액은 1,680만 5,600달러(한화 약 193억 원)로 전년 대비 2.0%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6년 이후로 보았을 때 연평균 32.1%의 큰 증가세를 보임
- 커피류의 수출액은 200만 600달러(한화 약 23억 원)로, 2016년 이후 연평균 71.0%의 큰 증가율을 보임
- 젤라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7.2% 증가한 181만 9,800달러(한화 약 21억 원)로 최근 5년 간 연평균 66.0%의 성장했으며, 주류는 130만 3,400달러(한화 약 15억 원)로 작년 수출액에 비해 11,233.9%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여 최근 5년 간 연평균 238.7% 성장하였음

한국의 對터키 수출상위 5개 품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0,524.9	17,767.5	17,620.1	25,645.9	29,391.4	100.	14.6	29.3
1	기타조제 농산품	5,511.0	10,665.3	12,979.5	17,145.9	16,805.6	57.2	△2.0	32.1
2	커피류	234.1	137.4	388.7	762.2	2,000.6	6.8	162.5	71.0
3	젤라틴	239.7	173.7	309.7	922.9	1,819.8	6.2	97.2	66.0
4	주류	9.9	0.0	23.6	11.5	1,303.4	4.4	11233.9	238.7
5	글리세롤 (조상의 것)	0.0	0.0	0.0	0.0	445.1	1.5	-	-

*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Ⅱ.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20년 터키 식품시장 규모는 전체 1,113억 1,400만 달러(한화 약 127조 7,21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 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임
 - 신선식품의 시장규모는 2020년 584억 8,700만 달러(한화 약 67조 1,080억 원)로 전체 52.5%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성장하고 있음
 - 육류 시장규모 184억 800만 달러(한화 약 2조 1,204억 원)로 전년 대비 15.0% 증가
 - 낙농품도 전년 대비 11.4% 증가한 15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조 3,544억 원)로 나타났으며 채소류는 10.6%, 과일 및 견과류는 8.9%, 유지류 2.9%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전체 식품시장에서 4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528억 2,700만 달러(한화 약 60조 6,137억 원)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5년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
 - ‘스낵류’는 19.4%로 가공식품 하위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1% 증가한 215억 9,100만 달러(한화 약 24조 7,735억 원)로 조사됨
 -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시장규모는 202억 3,400만 달러(한화 약 23조 2,165억 원)로 전년 대비 34.1% 성장함
 - 이어서 편의식품(5.7%), 소스 및 향신료(1.8%), 스프레드 및 당류(1.4%), 영유아용 식품(1.0%) 순의 비중을 보임

터키 식품시장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체	90,723	92,577	92,887	93,548	111,314	100
신선식품	49,814	50,822	50,984	51,335	58,487	52.5
- 육류	15,531	15,846	15,897	16,008	18,408	16.5
- 낙농품 및 난류	13,272	13,507	13,516	13,575	15,125	13.6
- 채소류	9,904	10,118	10,164	10,248	11,800	10.6
- 과일 및 견과류	8,208	8,408	8,469	8,561	9,883	8.9
- 유제품	2,899	2,943	2,938	2,943	3,271	2.9
가공식품	40,907	41,755	41,903	42,212	52,827	47.5
- 스낵류	17,457	17,759	17,757	17,823	21,591	19.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4,192	14,634	14,835	15,094	20,234	18.2
- 편의식품	4,629	4,711	4,713	4,733	6,327	5.7
- 소스 및 향신료	1,791	1,829	1,836	1,851	1,996	1.8
- 스프레드 및 당류	1,588	1,561	1,512	1,467	1,527	1.4
- 영유아용 식품	1,250	1,261	1,250	1,244	1,152	1.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함 (수산물, 펫푸드 제외)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터키 인구는 전년 대비 0.55% 증가한 약 8,361만 명으로 조사됨

- 인구의 18.5%인 약 1,546만 명이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 거주하며, 수도 앙카라에는 566만 명이 거주함
- 2020년의 중위연령은 32.7세로 나타나 32.4세였던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중위연령은 32.1세, 여성의 중위연령은 33.4세로 조사되었음
 - 2020년 15~64세의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약 5,6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7.7%의 비중을 차지함
 -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전년도 23.1%에서 올해 22.8%로 감소하였고, 65세 인구 비중은 전년도 9.1%에서 올해 9.5%로 증가함
- 남성 인구수는 약 4,192만 명으로 비중은 50.1%, 여성의 인구수는 약 4,170만 명으로 비중은 49.9%로 조사됨

- 2019년 평균 가계 가처분소득(Mean Household Disposable Income)은 69,349리라(한화 약 940만 5,805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Median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4,789리라(한화 약 336만 2,132원)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이스탄불의 연평균 가계 가처분소득이 49,239리라(한화 약 667만 8,286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319.8달러(한화 약 151만 4,339원)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7.7% 성장함
 -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693.5달러(한화 약 79만 5,722원)로 나타나 전년대비 12.7% 증가함
 - 육류 소비액은 218.3달러(한화 약 25만 477원), 낙농품 소비액은 179.3달러 (한화 약 20만 5,729원)로 나타나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 또한 전년보다 23.8% 성장하여 626.4달러(한화 약 71만 8,731원)로 집계됨
 - 스낵류 소비액은 256달러(한화 약 29만 3,734원)로 2019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전년대비 19.8% 증가함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은 전년보다 32.6% 상승하여 239.9달러(한화 약 27만 5,261원)로 나타남
 - 뒤이어 편의식품(5.7%), 소스 및 향신료(1.8%), 스프레드 및 당류(1.4%), 영유아용 식품(1.0%) 순으로 집계됨

터키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체	1,136.5	1,141.3	1,128.1	1,121.3	1,319.8	100
신선식품	624.0	626.6	619.2	615.3	693.5	52.5
- 육류	194.6	195.4	193.1	191.9	218.3	16.5
- 낙농품	166.3	166.5	164.1	162.7	179.3	13.6
- 채소류	124.1	124.7	123.4	122.8	139.9	10.6
- 과일 및 견과류	102.8	103.7	102.9	102.6	117.2	8.9
- 유지류	36.3	36.3	35.7	35.3	38.8	2.9
가공식품	512.5	514.7	508.9	506.0	626.4	47.5
- 스낵류	218.7	218.9	215.7	213.6	256.0	19.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7.8	180.4	180.2	180.9	239.9	18.2
- 편의식품	58.0	58.1	57.2	56.7	75.0	5.7
- 소스 및 향신료	22.4	22.5	22.3	22.2	23.7	1.8
- 스프레드 및 당류	19.9	19.2	18.4	17.6	18.1	1.4
- 영유아용 식품	15.7	15.5	15.2	14.9	13.7	1.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함 (수산물, 펫푸드 제외)

- 신선식품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임
 - 1인당 채소류 소비량은 116.2kg로 나타나 전년보다 17.3% 증가
 - 뒤이어 낙농품, 과일 및 견과류가 각각 61.4kg, 62.7kg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외에도 1인당 육류는 35.9kg, 유지류를 7.7kg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도 전년 대비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90kg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29.3% 증가함
 - 스낵류는 41.3kg, 편의식품 15.4kg, 스프레드 및 당류 7.9kg, 소스 및 향신료가 6.2kg로 1명 당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임
 - 영유아용 식품이 2kg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식품 소비량(2016~2020)

(단위 : kg)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선식품	채소류	94.3	96.4	97.3	99.1	116.2
	낙농품	68.4	64.8	60.6	57.2	61.4
	과일 및 견과류	63.2	61.3	58.7	56.5	62.7
	육류	36.1	34.8	33.2	32	35.9
	유지류	7.1	7.2	7.1	7	7.7
가공식품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83.6	79	73.8	69.6	90
	스낵류	44.5	41.5	38.3	35.6	41.3
	편의식품	15.1	14.1	12.9	12	15.4
	스프레드 및 당류	8.8	8.5	8.1	7.7	7.9
	소스 및 향신료	7.4	6.9	6.4	6	6.2
	영유아용 식품	2.9	2.7	2.4	2.2	2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함 (수산물, 펫푸드 제외)

2. 소비트렌드

- 터키 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플라스틱 줄이기, 식물성 대체육 소비 등 탄소발자국을 덜 남기는 친환경적 식품 소비가 주목을 받게 됨
 -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으로 식품을 소비하고자 함
 - 지속 가능한 식품 소비 니즈가 증가하며 식품 기업 및 레스토랑 등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있음
 -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육식보다 환경 및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자 식물성 대체육 및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 소비가 증가함
- 레스토랑 셰프가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함
 - 셰프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함
 - 전통적으로 요리사, 셰프 등 요식업 종사자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이들이 SNS를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함
 -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키의 요리 유튜버 Burak Özdemir는 레스토랑 체인 ‘Hatay Medeniyetler Sofrası’ 을 소유한 셰프이기도 함

-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 고급 식당이 배달 및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및 포장 서비스 수요는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점차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등 고급 식당까지 확대됨
 - New York Times는 터키 레스토랑의 배달·포장용 음식 패키징 및 관련 테크놀로지가 2021년 더욱 발전하리라 예측함
- 스트레스·피로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부상함
 - 2020년에는 면역력 등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품이 유행하였으나, 2021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 주목받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 피로도가 증가하자, 이에 도움되는 식품 및 레시피를 찾는 이들이 늘어남
 - Chef Seasons 2021 Taste Trends Report는 2021년 터키 식품 산업 메가 트렌드로 ‘행복한 날들’을 꼽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품이 유행하리라 예측함
 - Chef Seasons 2021 Taste Trends Report는 위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식음료 산업에서 사용해야 할 식품으로 퀴노아, 바나나, 연어, 버섯 등 식품을 제안함
- 친환경적이며 건강에 좋은 식물성 대체육 및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채식주의가 주목을 받으며, 채소를 사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고기·유제품을 대체하는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
 - 식물 기반 단백질 식품 생산 기술이 발달하며 대체육의 식감 및 맛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점도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끼침
 - 이러한 트렌드는 글로벌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나 대규모 식품 생산자 및 유통사 등 거대 자본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 내 소규모 생산자들도 식물성 대체육 소세지 및 슈니첼을 생산하는 등 터키 식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불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수요가 늘어남
 - 바나나, 호박 등 특정 영양소가 가득한 식품과 이를 활용한 레시피가 유행함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바네로, 할라피뇨 등 매운 고추를 소비하기도 함

터키식 비건 음식

	
Lentil Kofte(고기없는 미트볼)	Imambayildi(가지구이)

* 출처 : dailysabah.com, sbs.com.au

3. 유통현황

가. 유통현황 및 구조

- 2020년 터키 현대식 유통채널은 전체 식료품 오프라인 채널의 57.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전통식 유통채널의 10.5%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22.6%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장 중임
 - 터키 주요 현대식 유통채널로는 할인매장,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편의점이 있으며 슈퍼마켓이 55.4%로 현대식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님. 할인매장 또한 35.1%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규모와 점유율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 중임

터키 현대식/전통식 유통채널 규모 (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식료품 오프라인 채널	전체	40,578.8	44,930.1	50,867.9	59,364.0	75,233.5	26.7	16.7
	전통식	21,515.5	22,715.7	24,131.0	27,050.8	32,109.3	18.7	10.5
	비중	53.0%	50.6%	47.4%	45.6%	42.7%	△6.3	△5.3
	현대식	19,063.3	22,214.4	26,736.9	32,313.2	43,124.2	33.5	22.6
	비중	47.0%	49.4%	52.6%	54.4%	57.3%	5.3	5.1

*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터키 주요 현대식 유통채널 채널별 규모 현황 (2016-2020)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점유율 (‘20)	연평균 (‘16/’20)
현대식 유통채널	할인매장	5,645.7	7,222.9	9,550.6	11,884.4	16,057.6	37.2%	35.1
	슈퍼마켓	11,561.0	13,022.8	15,054.4	17,779.2	23,903.7	55.4%	34.5
	하이퍼마켓	817.4	767.8	785.7	924.4	1,154.7	2.7%	24.9
	편의점	1,039.2	1,200.9	1,346.3	1,725.2	2,008.2	4.7%	17.9

*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 터키 주요 할인매장으로는 빔(Bim), A101, 속(Sok)이 있으며, 할인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과 변화한 소비자 구매패턴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터키 리라화의 평가절하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불경기는 소비품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음. 할인매장은 타 현대식 유통채널 대비 가격, 판매 형태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어 소비자의 이목을 끌
 - 할인 프로모션 상시 진행, 대량판매, PB제품 출시를 통해 가격 우위를 확보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의 방문으로 대량구매를 선호하게 된 소비자 구매패턴에 부합하는 채널로 부상함
 - 터키 내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편의성을 추구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지리적 이점을 지닌 할인매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할인매장업체인 Sok과 A101은 전략적인 부지 선택으로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임. 신규 매장 설립과 더불어 편의점 브랜드 UCZ 인수 등을 통해 전체적인 매장 수 확보에 나서고 있음

매장명	Bim	Sok
사진		

* 자료 : dailysabah.com, alamy.com

- 터키 주요 슈퍼마켓으로는 미그로스(Migros)와 까르푸(Carrefour)가 있으며 다양한 제품라인 구성과 합리적인 가격, 배달 서비스로 터키 내 가장 큰 시장규모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심화된 경쟁 속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가치 전달을 통해 업계 내 차별화를 꾀함
- 터키의 슈퍼마켓들은 디지털화를 비롯해 코로나19에 빠른 적응 및 대응책들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요 슈퍼마켓들의 ‘다크 스토어(Dark Store)’화가 있음
 - * 다크 스토어란 오프라인 고객을 받지 않고 온라인 수요와 주문에 대응하는 창고용 매장임
 - 터키 주요 슈퍼마켓 업체들은 코로나19 기간 내 디지털화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 온라인 위상 강화, 배달 서비스를 구축함
 - 가격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거대 체인기업들은 소규모 업체들의 인수를 통해 더욱 몸집을 키우고 있으며 업계 내 경쟁이 아닌,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저렴한 가격을 표방하는 할인매장이 슈퍼마켓의 입지를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하자 터키 주요 슈퍼마켓들은 대응책으로 할인 프로모션과 PB제품 개발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 중임
 - 까르푸의 GIMA 인수, 미그로스의 우유펜(Uyum) 인수 등 거대 유통 체인기업들은 가격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업체들을 인수하며 규모를 더욱 키워가고 있음

매장명	미그로스(Migros)	까르푸(Carrefour)
사진		

* 자료 : turkpidya.com, shutterstock.com

- 터키 주요 하이퍼마켓으로는 5M 미그로스와 까르푸가 있으며 터키 하이퍼마켓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소비자 구매패턴에 단기적인 수혜를 받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이전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는 소규모의 양을 자주 구매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전환 중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식료품 부족에 대한 공포심리는 소비자들의 식료품의 대규모 구매를 통해 발현됐음. 이는 ‘원스탑’ 채널인 하이퍼마켓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코로나19 초기, 소비 필수품인 밀가루, 면, 이스트, 곡물 등에 대한 수요는 지역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었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과 풍부한 재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이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림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구매 트렌드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하이퍼마켓에 악재로 작용함
 - 소비자들은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들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됨. 오프라인 시장뿐만 아닌, 커져가는 온라인 시장 또한 하이퍼마켓에게는 적신호임
 - 터키 하이퍼마켓 업체들은 현재의 업계 호황이 단기적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확장 전략 대신 최적화 전략을 택함
 - 매장 내 팝업스토어 설치와 카페, 레스토랑과의 협업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소매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함

매장명	5M	까르푸(Carrefour)
사진		

* 자료 : turkpidya.com, tripadvisor.com

- 터키 주요 편의점으로는 섹마켓(Sec Market), 에코미니(Ekomini)가 있음.
 터키 편의점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터키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 전환과 전통시장의 잠식 추세로 성과가 주목됨
- 터키 편의점 시장의 2018-2019년 성장률은 28.1%를 기록했지만,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2019-2020년 성장률은 16.4%에 머무름
 - 코로나19 이후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구매 트렌드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편의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매장명	섹마켓(Sec Market)	에코미니(Ekomini)
사진		

* 자료 : bazaartimes.com, yagmur-ekomini-market.business.site

- 터키의 전통식 유통채널은 대다수가 바칼(Bakkal)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소매점 형태임.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골은 아직 바칼이 지배적인 위치인 것으로 나타남
- 현대식 유통채널들이 희귀한 터키 시골 지역 및 소규모 지역사회에는 바칼이 모든 식료품과 생필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매장형태	바칼(Bakkal)	터키 재래시장
사진		

* 자료 : tripadvisor.com, gotourturkey.com

- 터키의 2020년 식료품 온라인 유통채널 시장규모 점유율은 1.8%로 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비 미미하나, 온라인 유통채널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15.9%의 성장률과 2016-2020년 연평균 68.9%의 성장률을 보이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 중임
-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수요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지속적인 온라인 최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증가한 온라인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음
 - 코로나19 이전, 슈퍼마켓, 할인매장, 하이퍼마켓들의 자체 플랫폼 개발 등 지속적인 온라인화 움직임이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이 폭주하며 온라인 주문 전용 창고의 부재, 배달 지연 등 여러 문제점들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
 - 위 오프라인 매장들의 단점을 타 국가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온 온라인 마켓 플랫폼들이 보완하며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기업이 운영하는 트렌디올(Trendyol)과 미국의 이베이(Ebay)가 운영하는 엔11(N11)이 있음
 - 글로벌 온라인 유통 대기업 아마존(Amazon)이 터키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며 귀추가 주목됨
 -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터키의 온라인 시장 성장률은 다시 평이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오프라인 채널들의 온라인화 현상과 타 채널 대비 높은 성장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채널명	트렌디올(Trendyol)	엔11(N11)	아마존(Amazon)
사진			
홈페이지	www.trendyol.com	www.n11.com	www.amazon.com.tr

* 출처 : 해당 업체 홈페이지

Ⅲ. 농식품 정책 및 제도

1. 농식품 관련 정책

- 최근 터키의 농식품 정책은 터키의 '2019년-2023년 11번째 개발 계획' 내 농업 부분의 주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이 주를 이룸. 주요 목표로는 생산의 다양화 및 생산량 증가, 농가 지원, 토지 강화, 관개 확대가 있음³⁾
 - '작물 생산 개선 프로젝트'를 통한 수확량, 품질, 다양성 증가
 - 추가 농사가 가능한 24개 도시에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품질을 개량하는 프로젝트를 정부의 비용 지원 아래 시행함. 또한, 정부 소속 일부 농작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개방해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킴⁴⁾
 - 수출 보조금과 '비료 구매용 납부금 무이자 연장' 통해 농가 지원
 - 수출을 진행하는 농가들의 공공기관 납부 예정 비용(세금 및 에너지 비용) 감액과 일부 제품들에 대한 결손금 지급을 통해 농가 지원 중임⁵⁾
 - 2021년 8월, 터키농업신용중앙연합회(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Credit Cooperatives of Turkey)가 터키 농가의 비료 구매용 대출금의 대납 기간 무이자 연장을 밝힘⁶⁾
 - 관개 정착형 분지 개발 및 관련 연구 비용 지원
 - 가뭄으로 인한 심한 변동성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까지 관개가 정착된 분지 25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5개가 완성됨
 - 2021년 8월, 터키 농업부(Turke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는 관개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3,000만 리라(약 41억 원⁷⁾)를 지원 결정함⁸⁾
 - 2021년 7월, 터키 농업부는 국민의 전반적인 물 소비 인식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물 소비 가이드 제작하여 발표함⁹⁾

3) 터키 전략 및 예산 위원회(Turkey Presidency of Strategy and Budget), 'Eleventh Development Plan (2019-2023)', 2019.07

4)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2021.06

5)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 2021.06

6) 타림(Tarim), 'Sacrifice term interest fee loan from agricultural loan', 2021.08

7) 1리라=135.63원 (2021.08.01., KEB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8) 기다하티(Gidahatti), '30 million TL support for agricultural R&D Projects', 2021.08

9) 타림(Tarim), 'A guide for the efficient use of water i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21.07

-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해 식품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와 소비자 모두 사용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
 - 2020년 4월, 터키 농업부는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함.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한 곳에 모으며, 생산 체인을 명확하게 추적 할 수 있어 식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 밝힘¹⁰⁾
 - 2021년 7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적용되어 가축의 거래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¹¹⁾

- 코로나19로 터키인 주식 품목의 생산량이 타격 받아 대응책으로 일부 품목들에 관세 면제 및 관세율 인하 정책 실행
 - 2020년 10월, 터키 정부는 터키인의 주식 품목인 밀, 보리,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2021년 4월까지 면제함. 또한, 동일 기간 내 벼와 쌀의 기존 관세율인 34.0%와 45.0%에서 각각 5.0%, 15.0%로 인하했음¹²⁾

- 2020년 10월 터키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농식품 일부 품목이 포함됨¹³⁾
 - 2020년 터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와 FTA협정을 체결함. 이어서 2020년 12월에 영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와 FTA협상을 진행 중임

10) 아나돌루에이전시(Anadolu Agency), 'Turkey launches digital platform for agriculture', 2020.04

11) 타림(Tarim), 'Animal sales in the province can now be made in a digital environment', 2021.07

12) 레즈미가제트(Resmi Gazete), 터키 정부 공식 발표, 2020.10

13) 타림(Tarim), 'A new era begins with the free trade agreement!', 2021.03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터키 농업부(MinFAL, Republic of Turke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는 식품 및 농산물의 수입 정책, 규제, 그리고 공식적인 통제 및 검역을 담당하는 기관임
 - 터키는 법률의 채택, 수정 및 폐지를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통적으로 규정, 성명, 지침, 또는 회람을 발행하는 것을 선호함
 -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은 터키 농업부(MinFAL)에서 발행함
 - 터키의 식품 및 농업 법률은 81개의 지방 농업 이사회(PAFD,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Directorates)와 922개의 지역 이사회(DD, District Directorates)가 수행함
- 터키의 식품 수입은 ‘터키 식품 코덱스 법률(Turkish Food Codex Legislation)’ 과 수입 통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함
 - 터키는 수입 식품 규정과 ‘터키 식품 코덱스 법률’ 을 EU의 규정에 조화되도록 제정하여 여러 나라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고 있음
- 수입 서류와 서류, 그리고 서류와 물품 사이의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적하목록을 준비해야 함
 - 식품과 농산품 수입 시 수입허가서 및 인증서 등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함
- 식물성 식품의 수입업자는 ‘식품 안전 정보 시스템’ 을 통하여 ‘선적 신고서’ 를 작성하여 지방 농업 이사회(PAFD)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후에, 상품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 이전에 상품과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된 관리 증명서(해당 상품에 필요한 경우), 원본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성분 목록, 식물 위생 증명서,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건강 증명서, 그리고 선하증권과 같은 기타 수입 서류를 제시해야 함

- 신원 및 문서 확인 후, 지방 농업 이사회(PAFD) 검사 담당자는 분석빈도 요구사항에 따라 식물 견본, 식품과 접촉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물리적 검사를 수행함
 -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입 규제 시점에 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원칙적으로, 터키 농업부(MinFAL)는 전자 식물 위생 증명서,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건강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터키 농업부는 식물 위생 증명서, 자유 판매 증명서, 그리고 건강 증명서를 미국 발급 기관의 수입 통제를 수행하는 지방 농업 이사회(PAFD)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인정함
- 동물성 식품의 수입업자는 적어도 하루 전에 동물 국경 검사소 (VBIP, Veterinary Border Inspection Post) 또는 통관 게이트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동물 출입 서류(VEED, Veterinary Entrance Document)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동물 유래 제품의 수입업자는 사전에 국경 검사소 또는 통관 게이트에 수입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
 - 동물성 제품의 증명서는 터키 수입 규정에 따라 선적 2일 전에 수출국 공식 수의사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터키 농업부(MinFAL)는 전자 수의 건강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품 수입 시에 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공해야 함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방 농업 이사회(PAFD)나 동물 국경 검사소(VBIP)와 같은 터키 농업부(MinFAL) 관련 부서의 이메일로 수의 건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인정함
- 약식신고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날의 바로 다음 영업일의 영업 종료 시까지 BILGE(터키의 통관 시스템)를 이용하여 이행해야 함
- 약식신고는 수입신고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임
 - 적하목록 또는 선하증권의 원본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터키의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수입 시 이용한 운송수단에 따라 20일 또는 45일 이내로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터키 영역에 도착한 화물은 세관지정창고 등 지정창고가 아닌 개인 소유의 장소에도 장치가 가능함
 -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치 장소를 선정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세관에 따라 전산 또는 서류 접수 가능함
 - 터키의 전체 세관 중 절반가량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화물의 종류	신고기한
도로, 철로, 항공 운송	물품 도착 후 20일 이내
해상 운송	물품 도착 후 45일 이내

-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 내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함
 - 수입물품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함
 - 적색선(Red Line) : 물품검사와 서류검사
 - 황색선(Yellow Line) : 서류검사
 - 청색선(Blue Line) : 대형기업 또는 AEO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로, 주로 수입신고 수리 후 검사가 이루어짐
 - 녹색선(Green Line) : 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 심사 시 유럽지역의 물품은 주로 황색선(서류검사)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주로 적색선(물품 및 서류검사)으로 분류해 엄격한 통관 심사를 실시함
- 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이 완료된 이후 세관에서 관세 및 제세를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함. 일반적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음
 - 세관 신고금액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인 ‘CIF¹⁴⁾’를 기준으로 계산함

14)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화물 선적 시점부터 목적지 도착 시점까지의 운임료와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임. 단, 매도인은 화물의 선적 시점까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선적 후에는 매수인에게 화물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터키에는 부가가치세(VAT), 농업요소가산세(Agricultural Componet), 특별소비세(SCT), 주택기금(Mass Housing Fund) 등의 부가세가 존재함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주택기금 또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터키의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부가되는 종가세임
 - 농업요소가산세란, 우유 지방 및 우유 단백질 등과 같이 가공된 특정 농업요소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종량세임
 - 주택기금이란, 특정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종가세임
 - 가공식품이나 과일류 등은 기본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도 존재하며, 한국-터키 FTA 세율 적용 시 더욱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 수입자는 세관에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약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음

나. 검역제도

- 터키 식품검역은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자국 식품과 국민 건강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터키 농업부(MinFAL) 산하 식품통제국(GDFC)에서 식품, 수의학 및 식품 위생 정책과 관련된 법률의 채택, 동물 건강과 복지 보장, 가공·유통 및 시장 출시 등 모든 단계의 검역 검사를 관리·감독함
 - 농업부의 수입 통제 및 검역 대상이 되는 식품 및 농산물의 세관 게이트는 터키 통상부(Ministry of Trade)가 지정함
 - 검역이 필요한 식품 품목에 따라 지정된 통관 게이트 및 그 개수가 상이함
 - 수입식품은 크게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제품으로 분류하며, 동물성 제품의 경우, 수입 전 미리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가공식품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터키는 식품 규정에 대하여 이중 접근 방식을 따름

- 라벨링, 위생, 공식 통제, 첨가물, 오염 물질 등과 같은 모든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법률과 식품 보조제, 와인, 주류, 육류 및 육류 제품 등과 같은 특정 식품에만 적용되는 ‘수직적’ 법률로 분류됨

□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터키의 식품첨가물 법은 매우 상세하며 EU의 식품첨가물 규정에 따르도록 제정되었으나, 전통 제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규정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음
- 개정된 터키의 식품첨가물 코덱스 규정은 2013년 6월 30일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총 4번에 걸쳐 수정됨
 - 해당 규정에는 식품첨가물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이나 특정 전통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특정 식품첨가물 목록이 포함됨
- ‘국가 식품 코덱스 위원회(The National Food Codex Commission)’는 제안된 식품첨가물을 목록에 포함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짐

□ 농약 및 유해물질 관련 규정

- 터키 농업부(MinFAL)는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 2016년 11월 25일에 개정된 식품 내 최대 잔류 농약 수준에 관한 터키 코덱스 규정을 발표함
 - 농약 잔류물이 허용되는 신선, 가공, 또는 복합 형태로 사용되는 식물성 식품 및 동물성 식품에 대한 규정을 포함함
 - 터키 농업부(MinFAL)가 잔류농약 규정을 업데이트 함
- 농약은 터키 시장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터키 농업부(MinFAL)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승인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유효기간은 10년 더 연장됨
- 유해물질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은 2011년 12월 29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후 2012년에 한 번 개정됨

- 해당 규정은 식품 내 질산염, 진균독소, 중금속 등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 잔류 한도를 설정함
 - 농약 및 유해물질 규정은 EU의 동 규정과 하모니제이션 되도록 제정됨
 - 터키의 식품법은 특정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터키 식품 코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국제 식품 규격이나 EU의 지침을 참조하도록 규정함
 - 터키 농업부(MinFAL)의 지방 농업 관리국이 해당 규정을 수행함
- 터키로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다음 5개 품목 49종이며, 감귤류, 사과 등을 포함한 5개 품목의 20여종이 수출 불가함

수출가능 품목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수출불가 품목	• 과실류 : 핵과류(<i>Prunus</i> spp.), 감귤류, 사과 • 채소류 : 토마토, 고추, 감자, 오이, 양파 • 견과류 : 피스타치오, 헤이즐넛 • 콩, 버, 감자괴경, <i>Allium</i> 속 식물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심비디움, 국화
수출불가 품목 (세부)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 휴대식물 (국류, 과일(신선, 건조), 채소 등)은 다음 조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여행 중 소비하기 위하여 3kg 이하의 신선 또는 건조 과실, 채소를 휴대하는 경우 • 외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특별허가증을 가지고 식물류를 반입하는 경우 • 재식용 식물 1kg 이하를 세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에서 터키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 식용으로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망명객, 이민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 • 외국인 등에 의해 터키 정부, 자선 기관에 기증품으로 허락된 경우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다. 라벨링 제도

- 2017년 1월 26일, 터키 농업부(MinFAL)는 기존의 ‘라벨링에 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제’를 폐지하고 두 개의 별도 규정을 새로 발표함
 - 별도의 두 규정은 ‘식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 및 ‘영양과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임
 - 새로 발표한 두 규정도 이전의 라벨링 규정과 같이 EU 하모니제이션¹⁵⁾의 틀 안에서 EU의 지침 및 규정과 유사하게 제정됨
 - 터키 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식품은 통관 전 식품라벨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식품의 라벨은 터키어로 표기해야 하며, 스티커 형태의 터키어 라벨도 가능함
 - 라벨 상의 정보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식품의 특성, 원산지, 성분, 효과 등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재해야 함
 - 터키어 외에 다른 언어도 라벨에 표시할 수 있지만, 터키어로 라벨의 필수 표기 내용을 반드시 담을 필요는 없음
 - 원본 라벨에 있는 사진, 그림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반드시 터키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함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이름 • 성분의 목록 • 알레르기 성분 및 중량 • 제품의 순 중량 • 소비기한 • 특수한 저장 조건 또는 사용 조건 • 사업자 또는 업체의 이름 및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 • 사용지침(조리법) • 용량을 기준으로 1.2%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에 대한 알코올의 강도 |
|--|---|

15) 하모니제이션이란, 관세 인하 시 높은 세율은 큰 폭으로 내리고, 낮은 세율은 작은 폭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여러 나라의 관세율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을 의미함

- 다음과 같은 특수한 종류나 범주의 식품은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라벨링 추가 표기 사항

-
- | | |
|--|----------------------------|
| •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에 의해 승인된 포장 가스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늘어난 식품 | • 감미료를 포함한 식품 |
| • 글리시리진산 또는 그 암모늄염을 함유한 식품 | •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 |
| • 피토스테롤, 피토스테롤 에스테르, 피토스탄올 또는 피토스탄올 에스테르가 첨가된 식품 | • 에틸 알코올을 포함하는 식품 |
| | • 돼지로부터 얻은 재료를 포함하는 식품 |
| | • 냉동 고기, 냉동 재료, 미가공 냉동 수산물 |
-

- 식품의 영양 정보는 ‘영양과 건강 강조 표시에 관한 터키 식품 코덱스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거짓이거나 모호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아야 함
 - 다른 식품의 안전성이나 영양적 적절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지 않아야 함
 - 식품의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아야 함
 - 균형 있고 다양한 식단이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서술하거나 암시하지 않아야 함
 - 글, 그림, 또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소비자의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아야 함
- 영양 강조 표시 및 건강 강조 표시나 일종의 설명 및 광고가 라벨에 포함되는 경우, 영양 라벨을 필수로 작성해야 함
 - 영양 표시 사항에는 에너지 가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필요한 경우), 섬유질, 소금 및 나트륨, 비타민 및 미네랄 포함됨
 -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은 음료를 제외한 식품의 100g 또는 100ml 기준으로 섭취량의 15%를 충족해야 라벨에 표시할 수 있음
 - 음료의 경우, 그 양은 해당 제품 100ml 기준으로 7.5% 이상이어야 함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제품명	: 필리즈 플레인 누들 파스타
식품성분	: 물, 계란, 대두
알레르기 유발인자	: 대두와 계란 포함
유효기간	: 2022년 04월 27일
원산지	: 터키
사업자	: Banilla Guda A.S. D-100 Karayolu 7km 14240-Bolu, Turkey
조리법	: 물과 소금을 넣고 끓인 후 파스타 면을 넣고 8분간 끓이세요.
제품번호	: 075180
순중량	: 500g

* 출처 : www.hepsiburada.com

- 터키 인구의 98% 이상이 무슬림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할랄 관련 법 제도는 확인되지 않음
 - 터키는 헌법상 종교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 주류와 돼지고기(생고기 제외)의 수입이 인정되며, 할랄 인증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음
 - 터키의 할랄 인증은 이슬람법에 금지된 어떠한 요소도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수가 아닌 선택적 인증으로 확인됨

對터키 농식품 수출 절차



1



사전통보

(필요시) 제품 사전통보

- 대상: 동물 및 동물성 식품, 식물 및 종자류

제출서류

- ①상업 송장 ②선하증권 ③수입허가증(필요시)
- ④원산지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 등 적합성 인증 서류

현지유관부처 터키 국경(검문소)

2



수입허가증 발급

(동물성 제품) 수입허가증 발급

현지유관부처 터키 식품통제국
- 소속: 터키 농림부

4



통관 및 검역

위험도에 따라 분류 후 검역

- 녹색선: 세관신고서 제출
- 청색선: 수입신고 수리 후 검사 실시
- 황색선: 서류검사
- 적색선: 물품검사, 서류검사
- 아시아산 제품은 주로 적색선으로 분류

현지유관부처 터키 식품통제국
- 소속: 터키 농림부

3



수입신고

수입신고 전 약식신고 진행

- 터키 통관시스템(BILGE) 활용

운송수단에 따라 수입신고 진행

- 도로/철로/항공 운송: 물품 도착 후 20일 이내
- 해상 운송: 물품 도착 후 45일 이내

제출서류

- ①상업 송장 ②선하증권 ③수입허가증(필요시)
- ④원산지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 등 적합성 인증 서류

현지유관부처 터키 관세청
- 소속: 터키 상무부

4



관세납부

농산물의 경우 보호대상품목으로 높은 관세 부과

현지유관부처 터키 관세청
- 소속: 터키 상무부

5



반출(합격 시)

라벨 제작 표기언어: 터키어

표기사항: ①제품명 ②성분(재료)목록 ③알레르기 성분 ④순중량 ⑤유통기한 ⑥특수 저장조건/사용조건 ⑦사업자 명칭과 주소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원산지 ⑩제조일자/제품번호 등

2021년 12월 기준

KAT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